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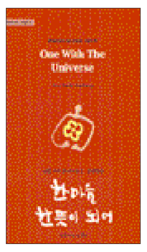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2 ~ 11/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5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6	죽창수필	운서주굉	불광출판사
7	리셋	월호	마음의숲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4인	운주사
10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마음’ 이 하는 일, 어디까지일까



〈일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
(생활 속의 참선수행 8)〉 한영합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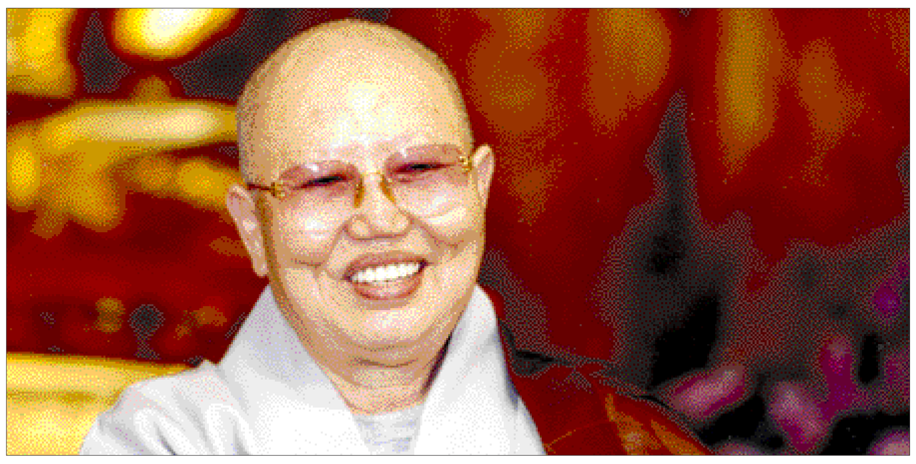
**대행 스님 법문 | 한마음국제문화원 영문번역
한마음출판사 펴냄 | 6천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활 속의 참선수행 9)〉 한영합본

**대행 스님 법문 | 한마음국제문화원 영문번역
한마음출판사 펴냄 | 6천원**

〈내 마음은 금부처(我心是金佛)〉 중국어본

**대행 스님 지음 | 仁[illegible] 번역
한마음국제문화원 · 한마음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마음공부는 개인 차원 넘어선 ‘공부’
지구 살리는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근본마음은 우주 전체 움직일 수도…
삶의 길 잃은 대중에게 필요한 법문**

지난 2012년 원적에 든 대행 스님〈사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2014년 하반기 새로운 책 3권을 출간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한영합본 8, 9권과 한글본으로 출간되었던 〈내 마음은 금부처〉의 중국어본(간체자) 〈아심시금불(我心是金佛)〉이다.

〈생활 속의 참선 수행〉 시리즈는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분인 대행 스님이 법회 때 설한 법문을 영역하여 한글 원문과 합본으로 구성한 책이다. 본 시리즈는 단순히 한글과 영문을 대조하여 읽을 수 있다는 이점을 넘어, 한글로 표현된 불교적인 표현과 단어들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표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글과 영어가 한 문단씩 병렬로 배치되어 있어 독자들은 마음공부와 영어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게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제8권 〈일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와 제9권 〈한마음 한뜻이 되어〉에서 대행 스님은 마음이 해낼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법한다. “마음공부는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개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공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에 갇혀 있거나 묶여있는 영령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작용은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에 온 누리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오존층 파괴와 같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자연계의 재앙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해결과 자연재해를 막아내는 처방전도 모두 우리의 근본마음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 한생각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 대행 스님은 강조한다.

또한 대행 스님은 우리의 근본 마음은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지녔으므로 오로지 내면의 뿌리인 근본 마음에 일체를 믿음으로 맡기라고 당부한다. 우리의 습과 착과 욕심을 내면의 근본 자리에 방하착하여 녹이는 작업을 하라고 말한다. 마음을 갈고 닦아 차원을 높여, 누구나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근본 마음의 위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라고 설법한다. 그 진화는 한 개인의 발전을 넘어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를 한마음 한뜻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두 권의 책은 말하고 있다.

〈我心是金佛〉은 이미 독일에서 출판되어 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했으며, 일찍이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출간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내 마음은 금부처〉의 중국어 간체자본이다.

대행 스님의 지혜와 유머가 담겨있는 33편의 법문을 모은 〈내 마음은 금부처〉는 무한한 근본마음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세상이 끝난 듯한 좌절감이 느껴질 때, 따듯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실할 때, 그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법문들이다. 한국불교의 지혜를 중국 불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책이 의미일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리 불교미술 알려면 인도미술사 먼저

인도미술사

왕용 지음 | 이재연 옮김 | 다른생각 펴냄 | 6만5천원

우리나라 고대 미술을 논할 때, 불교미술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불교미술의 원류는 당연히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다. 책은 중국인민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세계미술통사〉 시리즈 중 한 권인 〈인도미술〉을 완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고대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미술의 원류는 발상지 인도
인도 문명 초기부터 무갈 왕조까지
4500년 인도미술 편년사적으로 서술
현지 촬영 430여 컷 컬러 사진 수록**

우리나라 고대 미술의 많은 부분이 불교미술로 채워진 것처럼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미술 역시 불교미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미술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불교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미술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책은 인도 문명의 초기인 기원전 약 2500년경부터 무갈 왕조가 멸망(1854)한 근대까지의 약 4500년 인도 미술 전반을 편년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 분야별로는, 건축(각종 종교의 사원, 탑, 능묘, 등), 조소(불상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의 신상, 시바상, 약시상, 약샤상, 종교 고사 등 부조와 환조), 회화(벽화, 세밀화) 등 주요 미술 영역 전반을 다루고 있다.

총체적으로는 주로 인도의 종교, 철학, 미학의 시작에서 인도의 건축, 조소, 회화 등 조형예술의 풍격이 변화 발전해 온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면서, 인도의 불교 예술과 힌두교 예술 및 이슬람 예술의 정신적 내용과 심미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430여 컷에 달하는 많은 컬러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역대 인도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며, 대부분이 인도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것들로, 인도 미술사에 대한 중요한 시각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책을 통해 수많은 부조, 환조 등 조소 작품과 사원, 능묘, 스투파와 석굴 등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고 정교한 건축 작품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책의 뒷부분에서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인도 세밀화는 그 동안 우리에게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 생소하면서도 참신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중간 중간에 독특한 인도 전통의 미학 이론도 소개하고 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립된 아대륙 성격을 디고 있다. 그리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여 장기간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독특한 민간신앙이 발달했고, 이어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다수의 세계적인 거대 종교들도 탄생하여, 문화와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크로드 상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양쪽 지역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거나 혹은 양쪽으로부터 잦은 침입을 받음으로써,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간에 동서 문물의 교류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 위에 새롭게 유입된 외래 요소를 융합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다. 책은 그러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각 시대별, 왕조별로 어떠한 예술 풍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예술 작품들에 대한 풍부한 도판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내역과 주요 제원, 그에 얽힌 고사 등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부처의 두상과 비천, 6C(사르나트 고고박물관)

박재완 기자

불보살 지혜 담긴 ‘진언’ 한 자 한 자 따라가기

다라니(진언) 사경 1~6권

운주사 편집부 펴냄 | 각권 5천원

사경은 예로부터 수행의 한 방편으로 널리 권장되었다. 다만 옛날에는 사경 도구가 귀하고, 글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경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책 〈다라니(진언) 사경〉 시리즈는 중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일들, 인생의 크나큰 일들에 대한 발원을 담은 진언들을 모아 엮은 사경수행 공책이다.

사경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것으로, 기도 수행의 한 방법이다. 즉 사경은 몸과 마음을 정갈히 가다듬고 부처님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정성껏 옮겨 쓰는 수행 과정을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신심과 원력이 증장하고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며,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목숨을 마치고 극락왕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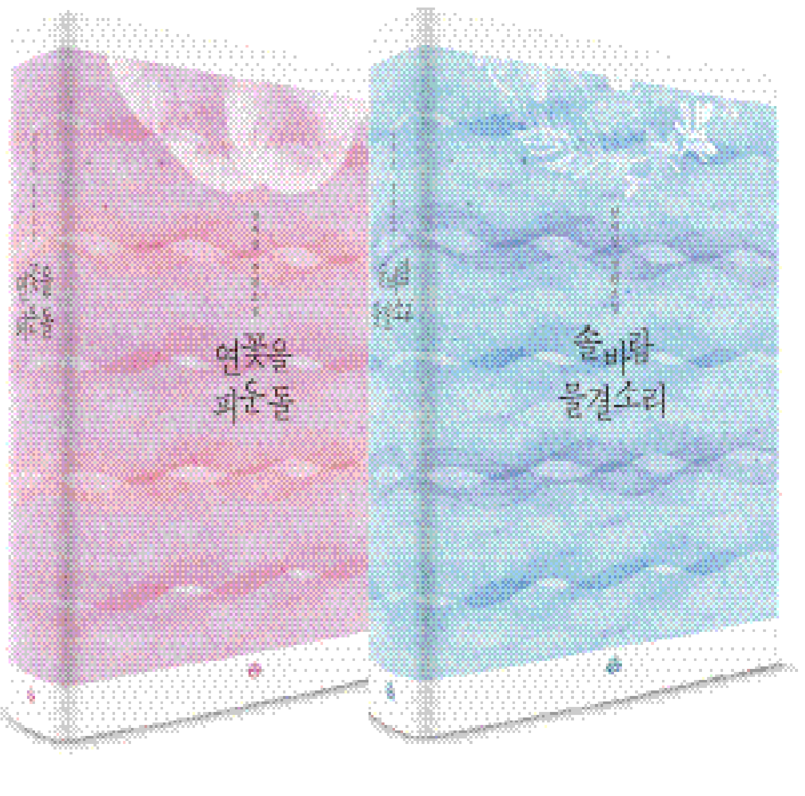
불교에서 ‘진언’은 수행의 한 방편으로 매우 중요시 해왔는데,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진언 자체를 관하는 명상을 하거나, 정성껏 받아쓰는 등의 수행을 통하여 물질적, 정신적 장애들을 극복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어 궁극에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책은 사경이란 무엇인지, 사경의 의의, 진언 사경의 공덕, 사경하는 순서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공책으로 나온 〈다라니(진언) 사경〉은 독자가 한 자 한 자 채워내는 책이다. **박재완 기자**

〈다라니(진언) 사경〉 시리즈 1~6〉 구성

▲1권 〈과거세로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참회진언, 관세음보살 참회주
▲2권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광명진언,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정삼업진언, 세제죄장진언, 보현보살멸죄주
▲3권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호제동자다라니, 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
▲4권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문수보살 오자진언, 대일여래 만족일체지진언, 관세음보살 보경수진언, 혜철수진언
▲5권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약사여래 대진언, 약왕보살진언, 문수보살 소제병고다라니, 제일체질병다라니
▲6권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대원성취진언, 수구진언, 준제진언, 관자재보살여의륜주

국어교사인 강기혜와 다솔스님, 신문사 기자인 자운이와 혜강스님,
이들이 펼치는 사랑은 투명한 수채화 같다.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고 애절할 수 있다니!

너무도 그리웠던 그 소설!
남지심의
『솔바람 물결소리』『연꽃을 피운 돌』출간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행복한 선물!

출간 기념 ‘서평’ 이벤트

『솔바람 물결소리』『연꽃을 피운 돌』을 읽은 독자님들의 서평을 기다립니다. 선정된 분들은 ‘도서출판 얘기꾼’의 서평단이 되어 얘기꾼에서 출간한 모든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얘기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batistaff@naver.com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70 · 8880 · 8202

연꽃을 피운 돌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솔바람 물결소리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도서출판 얘기꾼